

# 전북·교육 현안 해결에 '가속도'

김관영 도지사-서거석 교육감,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 열고 현안 해결 머리 맞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발빠른 소통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한병도·김윤덕·김성주·김수홍·윤준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전북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중에 교육과 관련된 사항도 많이 발굴됐으면 한다”면서 “이 자리에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하면 만큼 관련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특히 전북교육감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교육감의 이날 간담회 참석은 김관영 지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북도를 비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롯한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조찬간담회는 법안논의, 현안보고, 의원제안안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

문대학원법 제정이 논의됐다.

이어서 현안 보고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추진, △전북 새민중이차진지 특화단지 공모 대응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제(4월 1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방문을 마쳤고 각 지자체가 잘되어야 전북이 잘 살 수 있겠다고 느꼈다”며 “여기 계신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전북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해서 각 부처를 방문해 집중 설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김재훈기자

# “인천發 전세 사기 전북도 안전지대 아냐”

김성수 도의원, “재산세 과세 내역 검토 등 사기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 적극 필요”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다”면서 “인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세사기·강릉전세 문제가 전북 역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전북의 경우 한때 1억 미만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투기꾼들의 단체 소량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으로 전세 사기 및 강릉전세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5채 이상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점검 등 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입자들에 대한 사전 지도를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빌라의 경우 자체 거래량과 비교 대상이 부족해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강릉전세’ 여부를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빌라에 몰려 있는 도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훈기자



# “학부모 교육정책 제안 반영 노력 약속”

윤수봉 도의원,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 참석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안주1)은 완주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전라북도 교육청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의 정책 제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교육청의 2023년 10대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학부모는

‘광역형 공동통학구역 어울림 학교 추진’, ‘기초학력 책임제’, ‘작은 학교 살리기’, ‘장애 학생 특수학교’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지역별 테마가 있는 농촌 유학과 삼봉중학교 신설 문제 등 완주의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윤수봉 의원은 학부모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학부모들의 정책 제안이 도교육청 및 완주교육지원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완주군과도 적극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기자



#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권리 찾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주 ‘저자와의 대화’서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언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전주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서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협한 틀판을 묵묵히 걸어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장관 이진과 이후 달라진 입장에 대해 “장관 전에는 공적 지식인으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해왔고, 장관직명 후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가속도 혹은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제 교수도 민정수석도,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협한 틀판을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전주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는 평

소 조 전 장관과 ‘동지로 불릴 만큼 신의가 두터운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요청으로 개최, 사전 신청 1시간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졌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서울 광주 부산과 달리 더 많은 소회와 발언으로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주를 찾은 조 전 장관은 “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오랜 벗과 탄탄한 동지들이 사는 곳이야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방문소감을 전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책의 내용 중 지난 저자와의 대화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루소, 몽테스키외가 아닌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발언했다.

조 전 장관은 예링의 사상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링이 강조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형벌권을 몸소 체험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형사법을 전공했지만, 실제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되고 보니 국가형벌권의 무서움과 비정함을 온 몸으로 느꼈다”며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법고전 산책에서 다른 베카리아의 형사사법개혁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언급. 참석한 독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선임으로 최강욱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조 전 장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은 “다른 북콘서트와 달리 유독 전주에서 진정성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전주시민들의 큰 호응과 응원에 조 전 장관이 소중한 기운과 힘을 얻고 간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비서관들이 함께 참여해 조 전 장관에게 늦은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등 감동 이벤트로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김재훈기자

#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주시 체류형 관광 선진지 답사

전라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위원 이수진)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체류형 관광 선진지 답사를 위해 충남 공주시를 찾았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 위원들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심각한 안정, 정화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곡사 템플스테이(당일형)에 참여해 점심공양 명상, 스님과의 차담

합장주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이어, 2010년 조성된 공주한옥마을을 찾아 한옥마을 관계자로부터 한옥마을 시정현황, 운영실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제민천을 중심으로 공주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내대주 풀꽃문화관, 하숙마을, 박찬호 기념관 등을 전변을 따라가면서 차례로 둘러봤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는 이수진 김정기, 이병도, 이병연, 문승우, 윤영숙, 김이재, 박정규, 진형석, 전용태, 김슬지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재훈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